산업통상자원부 MINISTRY OF TRADE, INDUSTRY & ENERGY

보 도 자 료

희망의 대한민국 http://www.motie.go.kr

2013년 12월 19일(목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: 국제표준과 정기원 과장(509-7399), 전종윤 연구사(509-7400)

중동사막에 부는 한국 기술·표준 바람

- 국가기술표준원, 중동지역 기술장벽 해소 및 시험·인증제도 전수 -

□ 국가기술표준원 성시헌 원장은 중동지역 수출기업의 기술장벽을 해소하고 국내 시험·인증제도를 전수하기 위하여 지난 12월 17일 걸프지역표준화기구(GSO)와 사우디표준청(SASO)을 방문하였다.

○ 최근, 사우디, 아랍에미레이트 등 걸프지역 국가들은 전기제품에 대한 에너지효율 등 새로운 인증제도를 도입하는 추세로, 우리 기업이 수출할 때 겪는 기술장벽을 최소화하기 위해선 시험·인증 분야의 협력 확대가 절실한 상황이다.

* GSO(**G**ulf Cooperation Council **S**tandards **O**rganization) : 사우디, UAE, 쿠웨이트, 카타르, 오만, 바레인, 예멘 등 7개국으로 구성된 지역표준화기구로 '11.7월 어린이 장난감에 대하여 GCC 인증획득을 강제화, 향후 전기전자제품, 건축재료 등 대상 품목을 확대할 예정

□ 수출기업의 시험·인증관련 애로사항을 해소하기 위하여 성시헌 원장은 GSO 사무총장과 상호인정 협약 체결에 앞서 이행계획(Action Plan)에 서명하고,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하기로 합의하였다.

○ 동 상호인정이 시행되는 경우, 국내 인증기관에서 걸프지역 강제인증제도의 인증서를 직접 발행하고, 그 인증서는 역내 7개국에서 통용됨에 따라, 우리 기업의 중동지역 수출에 청신호가 켜질 것으로 예상된다.

○ 또한, 국가기술표준원은 중동지역 강제인증에 대한 기술기준 마련, 계량법 실량표시제 등 시험·인증분야에 우리 기술·표준 시스템을 전수하고, GSO 회원국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도 실시할 계획이다.

□ 한편, 국가기술표준원은 사우디 내에 한국형 시험소건립을 지원하는 표준협력도 강화한다고 밝혔다. 지난 11월에 에어컨시험소 건립을 위한 계약(214만불)을 체결하고, 내년부터 추가적으로 세탁기, 냉장고, 전자파 시험 등 4개 시험소 건립(총 1,900만불)을 추진할 예정이다.

□ 안종일 표준정책국장은 최근 선진국은 물론이고 개도국에서도 시험·인증과 관련한 무역기술장벽(TBT)을 높이고 있어, 이를 넘어 중동지역의 수출 시장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상호인정 협약, 표준 및 기술기준 동질화 사업 등 선제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.

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국제표준과 전종윤 연구사(☎ 02-509-7400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